

#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January \_ Vol. 73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 1.22~2.28,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대상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고 하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8일)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3,021가지의  
토털 식품위생 솔루션

## 세스코 식품안전 위생진단 서비스

1 Step

FOOD SAFETY  
CONSULTANT

외식업장의 사업을 돕는  
식품안전 컨설턴트가  
찾아갑니다



2 Step

3,021

조리시설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3,021가지의 기준으로 철저히  
진단합니다

3 Step

UPGRADE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4 Step



세스코의 다양한 업장홍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먼저 찾는  
깨끗한 맛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 2017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 90.5%..꾸준히 증가

-백화점.대형마트는100%이행,이행 독려 위해 노점상.음식점 집중 홍보 필요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90.5%로, 대상 업체 10개 중 9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업태별, 지역별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원산지 단속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해 왔다. 전국 약 8,000여 개 업체를 표본으로 삼아 원산지 표시 이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이행률 및 품목 표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 포항, 강릉 지역에서 10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업태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100% 이행률을 기록하여 타 지역 및 업태 대비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점상과 음식점의 이행률은 각각 70.0%, 8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점상과 음식점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원산지 이행 취약 지역 및 업태를 중심으로 지도·홍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이와 함께 지자체,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수산부, 1월 15일)

### 정책 / 법령 정보

## 시중 유통 도시락,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 벤조피렌 안전한 수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중벤조피렌 실태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하여 위해평가 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식의 수요가 늘고 있어 즉석섭취·편의식품 및 조리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식품은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즉석조리·섭취식품(도시락, 볶음밥, 피자, 돈까스, 탕수육, 훈제오리, 훈제닭, 만두, 소시지, 호빵, 라면, 갈국수 등 157건)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피자, 햄버거, 치킨 등 43건) 총 200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한 영향이 없는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저감화 연구,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식품안전과 소비자 안심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7일)



**세스코 시험분석 서비스**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HACCP 위해요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0호(식품), 제59호(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식품/축산물 제조, 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첨단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증 하는 국가공인검사기관

## 2018년은 농산물 안전성 강화의 원년

- 직권 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PLS 제도(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19.1.1일 전면 시행 예정) 전면시행을 1년 앞둔 금년을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촘촘한 지도와 교육,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에서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참나물, 쑥갓, 근대 등)은 직권 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600여개)을 늘릴 계획이다. 둘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시 농약안전사용 교육(955개과정, 약124만명)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치 방 영농기술 농약 안전 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 사용 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 맞춰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작물별 주요 방제 시기에는 마을방송으로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PLS 제도가 연착륙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월 17일)

## 식약처, '17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

- '16년 대비 금액 기준 7.0%, 중량 기준 6.0%, 건수 7.5%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년 수입식품 규모가 수입 금액으로는 250억 8,772만달러, 중량으로는 1,829만 3,759톤, 건수로는 672,278건이며, 168개 국가로부터 수입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6년 대비 수입 금액은 7.0%('16년 234억 3,759만달러), 중량은 6.0% ('16년 1,726만 1천톤), 수입 건수는 7.5%('16년 625,443건) 증가한 수치이다.

'17년 수입식품의 수입 금액, 중량을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수입 금액과 중량으로는 미국, 수입건수 건수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신고건수로는 중국 175,891건, 미국 92,563건, 일본 46,653건, 프랑스 28,394건, 태국 28,315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년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는 수입신고 672,278건 중 1,284건(부적합률 0.19%)이었으며 '16년 보다 0.01%감소하였으며, 부적합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이 가장 많았으며(57.9%), 기구류(15.0%), 건강기능식품(7.9%), 농·임산물(6.5%), 축산물(6.0%), 수산물(5.5%) 및 식품첨가물(1.3%) 순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이 있는 품목들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6일)

### 해외식품 위생평가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제4호)

####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점검기준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점검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



- 상향 평준화된 객관적 평가 시각
-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



- 충분한 인적, 물적, 경험적 자원 확보
- 해외식품 위생평가 대상업체 접근 편의성 확보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준 높은 평가기관



- 위생평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생평가원 심사 및 평가 체계 구축
- 위생평가원 윤리의식 강화

## ⚠️ 주요 단속 정보

### '18년 1~2월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굴, 광어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도 점검	부적합 이력 양식장,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	11.20~'18.1월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	1.25 ~ 2.2
○ 발렌타인 데이 대비 점검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업체	2.5 ~ 2.9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1차)	인터넷 등 판매 제품	2.7 ~ 2.9
○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 제조.판매 점검	이유식, 영유아곡류조제식 등	2.19 ~ 2.21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절임배추, 꽃감, 과메기, 멸치 등	2.22 ~ 2.2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산업 NEWS

### 농진청,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 위해 규격 안내서 보급

- 정형방법, 부위 소개로 구매자 이해 돕고 업체 어려움 해결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고기 수출 규격안내서」 국문, 영문판을 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우고기 수출업체는 해외 부분육 규격과 우리나라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문 자료가 없어 수입국 구매자(바이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발간한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에는 등심, 설도 등 한우고기의 10개 대분할 부위와 꽃등심살, 부채살 등 39개 소분할 부위의 정형방법과 사진을 담았다. 대분할 부위 분할정형 과정과 대분할 부위 사진에 소분할 부위의 위치를 표시해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으며, 각각의 소분할 부위는 전체 사진과 함께 썰었을 때의 단면 사진을 실어, 근내지방이 골고루 분포된 한우고기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수출 규격 외에도 맛의 우수성, 과학적 생산체계 등 한우고기가 특별한 이유와 소고기 등급제, 소고기 이력제, HACCP제도를 소개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수출 규격 안내서를 통해 수입나라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수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홍콩 외 많은 나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1월 17일)



###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http://cescofood.co.kr)

#### HACCP 정기 과정 (2/21, 3/14)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 HACCP 경영자 과정 (2/21, 3/14)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 HACCP 팀장 과정 (2/22~23, 3/15~16)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 식품 전문 교육



#### HACCP 재인증&사후심사 대응 (3/28)

- 재인증/사후심사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 tip 제공
- 위해요소분석, 검증 중점 이론교육에서 현장 실습까지!

####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3/27)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실습 (3/13)

- 표시 연관 법규를 한눈에 소개(법, 공전, 기타 법규)
-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표시 근거와 영양성분표, 표시를 직접! 작성하고 오류사항도 찾아보는 실습을 한번에!

‘환급’

‘환급’

‘환급’

#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국민 알권리 강화

-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보고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
-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확인된 '잣'을 표시 대상에 추가
-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대해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도안' 표시 전면 시행

### 식용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용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트 등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대규모 농장 등의 HACCP 인증 의무화

### 불량 수입업자 강력 퇴출 등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유통기한 변조 행위 및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알.염.한천 등을 혼입시킨 경우 1회 위반시에도 영업등록 취소
- 원재료 거짓신고,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 허위 수입신고 처분기준 강화

### GMP적용 의무화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18년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GMP 적용 순차적 의무화
- 품목별 연 매출액(2016년 이후) 1억원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국회 지적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생산단계 관리 강화

- 닭·오리 농장 HACCP 인증업체 관리 강화
  - HACCP 인증.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리 항목 신설, HACCP 농장에 대한 불시평가 실시
- 유통 벌꿀 항생제 등 위해우려 성분 및 식약공용 농산물 검사 강화
  - 국내 제조.소분 벌꿀, 단순처리농산물로 제조된 식품 등 항생제,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제조단계 관리 강화

- 식품제조업체 사용, 압축공기 여과필터 관리 강화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 분사하거나 식품을 생산.제조하는 기계.기구류에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체 대상
- 질소 등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12.11.) 및 처분 기준 강화(영업소 폐쇄, 9.26. 입법예고)

### 유통단계 관리 강화

-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위생관리 강화
  - 햄버거 등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 소비단계, 수입단계 관리 강화

-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해 판매되는 소비자만 허위.과대광고 제품 관리 강화
  - 탄산수를 탄산음료로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
- 해외직구, 휴대반입식품 등 비정상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검사 및 위해우려 식품군 검사 강화

- 가정간편식, 배달앱 등 식품 소비 트렌드 및 위해정보에 따라 주기적인 기획 검사 강화
- 제조업체 사용 원료성 농.축.수산물 대상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 성분 검사 및 부적합 제품 추적조사
- 수산물 및 유제품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수립. 시행
-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 특별관리 실시

###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점검항목 1개 이상 위반시 수입중단 등 조치 및 수입신고 보류 조치(무검사 역류제) 도입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17.10)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 위해우려 제품 통관 검사 강화

### 영양취약계층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급식안전관리 적극 지원
- 급.외식 안전 확보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 체계,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18년 연간지도.점검 추진 일정 \_ 하반기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7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 교차점검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커피, 주스 프랜차이즈 등	07.02 ~ 07.10
	○ 생과일주스 전문 조리.판매업체 점검	부패.변질된 원료(곰팡이 핀 과일 등) 사용, 믹서기 위생적 관리(세척.살균)	07.16 ~ 07.20
	○ 하절기 맥주(소규모 맥주 포함) 제조업체 점검	맥주제조업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07.23 ~ 07.27
8	○ 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 점검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08.06 ~ 08.10
	○ 가을 신학기 식재료판매업체 및 조리.판매업체 합동점검	학교 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	08.20 ~ 08.28
	○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08.27 ~ 09.04
9	○ 추석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 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09.03 ~ 09.11
	○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교차 점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	09.13 ~ 09.19
10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점검(2차)	약령시장 내 농.임산물 식품판매업체	10.01 ~ 10.05
	○ 과실주, 리큐르 제조업체 점검		10.15 ~ 10.19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점검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	10.15 ~ 10.19
	○ 수산물 양식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점검(2차)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양식장 및 판매업체	10.15 ~ 10.23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건기제조업체 점검(2차)	인삼, 홍삼, 비타민 등	10.22 ~ 10.26
	○ 군납 식품제도가공업체 합동점검(3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0.22 ~ 10.26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10.22 ~ 10.30
11	○ 군납 식품제도가공업체 합동점검(4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1.05 ~ 11.09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2차)	인터넷 등 판매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광고	11.07 ~ 11.09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2차)	절임배추, 곱감, 과메기, 멸치 등	11.12 ~ 11.20
	○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 교차점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	11.19 ~ 11.23
12	○ 소주 제조업체 점검		12.03 ~ 12.07
	○ 성탄절 및 연말연시 합동 점검	빵류(케이크), 떡류, 초콜릿류 등 제조.판매업	12.10 ~ 12.14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	12.26 ~ 12.28